

의體質改善이라는點에서 그獨自性を 나타내게 되었고 또한 後代 漢醫學 發展에 主宗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龜巖의 思想과 醫學의 研究는 東醫寶鑑에서 찾아 볼 수 있고 또한 그의 代表的 著述이라는點에서 本書를 中心하여 다음 세가지 面을 考察하고자 한다.

- 1) 後世醫學의 吸收와 時代的 背景
- 2) 中國醫學體系의 脫皮
- 3) 道家, 佛家의 學問의 利用

結論으로 龜巖의 醫學의 研究는 첫째, 中國의 漢民族이 이룩한 封建的 內經, 傷寒論 中心의 體系가 아닌 實用 爲主의 後世醫學을 받아들여 韓國漢醫學으로 發展시켰다.

둘째, 龜巖 自身の 醫家의 立場에서 道家의 三要와 佛家의 四大을 宗教의이 아닌 醫學的인 面에서 利用하는 即 產學協同의 精神으로써 漢陽朝 醫學을 最高의 水準으로 끌어올리는 原動力이 되었다.

※ 參考文獻

- (1) 韓國 漢醫學의 時代的變遷
- (2) 龜巖의 校正, 諺解, 編述한 冊
- (3) 龜巖直系譜
- (4) 東醫寶鑑과 醫宗金鑑의 比較
- (5) 地理 氣候가 傷寒醫學에 미친 影響

韓國醫學과 印度醫學의 關係

名譽會長 金 斗 鍾

韓國醫學은 三國時代의 中期인 四世紀의 後半期頃에 들어서면서 佛教의 輸入과 함께 印度醫說과의 關係를 갖게 되었다.

印度醫學은 원래 이집트醫學과 같이 僧侶醫學에 속한 것이므로 博學高僧들이 대개는 醫方에 통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佛教의 菩薩들이 반드시 배워야 되며 또는 통달하여야 되는 五個處의 知識인 國明 中에는 醫方을 應用케 하는 醫方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널리 읽어진 佛典인 南海寄歸內法傳의 進藥方法과 金光明最勝王經의 除病品을 비롯한 各 佛典 中에 印度醫說을 散見할 수 있으며, 高麗 高宗(元年은 1214년)때에 西雕한 現 海印寺八萬大藏經板 中에도 佛醫經, 喻醫經, 救療小兒病經, 療痔病經 등등의 醫學專書가 十數種이나 採錄되어 있다.

그리고 三國時代의 僧醫들이 數次에 걸쳐 日本에까지 건너가서 日本醫學 發展에 많은 影響을 미치기도 하였다. 이런 點으로 미루어 보아 三國時代 中期 이후

로 高麗時代에 이르기까지 隣接大陸의 漢醫方과 함께 印度醫說이 상당히 流布되었으리라고 믿어진다.

그러나 近世朝鮮에 들어서는 崇儒排佛의 政策에 따라 佛典의 醫方도 차차로 利用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世宗實錄 26년 5月 13日에 世宗大王이 眼疾로 興天寺에 收藏된 大藏經 中에 醫方이 있다는 것을 듣고 곧 가서 보려고 하였으나 右承旨 柳義孫 등이 外人들에게 佛典崇信하는 疑心을 가질 것이니 醫를 보내어 考閱케 하도록 啓請하였다는 데에서 推證할 수 있다.

그런데 印度醫學 中에는 衆生은 生, 老, 病, 死의 四大苦를 비롯한 모든 苦의 世界에서 生存하므로 人生의 世界에는 病苦를 免할 수 없는 因果關係가 있고 그 病苦는 地, 水, 火, 風의 四大不調에 기인된다는 소위 四大不調의 病理說을 볼 수 있다.

本病理說은 龍樹菩薩의 作인 大智度論을 비롯한 여러 佛典 中에서 佛教의 한 通說로서 散見할 수 있다.

이러한 印度醫說의 四大不調病理說은 그리스의 地, 水, 火, 風의 四元素에 의한 四液體病理說과 類似할 뿐 아니라 紀元前 1世紀頃으로 推定되는 印度醫聖 카라카(Charaka)의 醫錄과 紀元前 5世紀頃의 그리스醫聖 히포크라테스(Hippokrates)의 醫書와의 사이에는 許多한 類似點을 發見할 수 있다 하여서 印度醫學이 그리스醫學의 影響을 받은 것이라고 主張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혹은 그와 反對로 印度醫學의 獨創性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러한 兩醫學의 前後問題는 여하간에 兩醫學의 相互關係가 깊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아마 알렉산드로스大王의 遠征이 兩醫學의 接觸을 더욱 긴밀케 하였을 것이라고 推論하고 있다.

그러므로 印度醫說을 輸入한 三國時代醫學 中에는 그리스醫學의 感化를 받은 要素가 섞여 있지 아니하였던가를 推想하여도 좋으리라고 생각된다.

비르호우의 「세포병리학」의

중심 문제

가톨릭대의학부 교수 김 영 제

물질→「에너지」→정보란 과정을 거친 현대 자연과학의 입장에서 서서 비르호우의 「세포병리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바로 본 발표의 중심문제이다. 결론부터 먼저 소개한다면 아래와 같다.